

## 올바른 한글 지질과학 요약문 작성을 위한 제안

장순근, 한국해양연구소 극지연구본부, skchang@kordi.re.kr

1999년 가을 대한지질학회에서 발표된 한글 요약문들을 바람직한 작문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작문상 문제점의 사례로는 외국어어법 구사, 어려운 문장, 유치한 문장 그리고 지나치게 긴 문장들 따위가 있다. 외국어 어법에는 일본어나 영어의 어법과 비슷한 것들이 많다. 바람직한 한글 요약문 작성을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교양과학책을 많이 읽고 둘째, 정성을 들여 20 어절 정도의 단문을 쓰는 것이다. 정성을 들여 쓴다는 것이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쓰며 동료나 지도교수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 제안들이 당연히 한글로 지질과학 논문을 쓸 때에도 적용된다. 아래의 표가 연구재료에서 발견된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들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	바람직한 표현이나 의견
本 연구는, 本 지역은, (良好하다) 思料된다, (發生하다), 極히 共히, (...이 産出된다), 必히 多番, (存在한다), 多樣하다 同 지역은, (類似하다) 위에서 言及했듯이, (反復한다) ...의 (지질학의, 고기후학의, 대표의 따위들) ...에 位置한다 ...에 根據(基礎)한다.	이 연구가, 이 지역이, (좋다) 생각된다, (일어나다), 대단히 마찬가지로, (...이 나온다), 반드시, 꼭 이번, (있다), 여러 가지이다 또는 많다 이 지역은 또는 그 지역은, (비슷하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되풀이한다) 내용에 따라 알맞게 고쳐야 ...에 있다 ...에 바탕을 둔다.
"...에 依한", "...에 依하여", "...에 依하면" 따위들 ...에 對하여(...에 대해), ...에 關하여(...에 관해) ...等, ...等等 特히, (그럼에도 不拘하고) 比하여, (同定하다) "...불린다", (可能한 限) "...않는 以上"	내용에 따라 알맞게 고쳐야 ...에 대한, ...에 관한 "처럼", "같은", "따위" 같은 말을 써야 알맞게 고쳐야, (그럼에도) 견주어, (鑑定하다) "...라고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않는 바에는, 않는 다음에는, 않을 때에는"
보다 자세한 결과는 乃至 "...에 다음 아니다" ... 및 ... (주향 및 경사률) "...의", "...와의", "...과의", "...에의", "...로의", "...으로의", "...에서의", "...로서의", "...으로서의", "...로부터", "...에서의", "...에 있어서" 따위들	더 (더욱, 좀 더) 자세한 결과는 두 가지 뜻이 있는 바, 내용에 따라 알맞는 표현을 해야 "...에 지나지 않는다", "...일 뿐이다" ...과(와) (주향과 경사률)
"...가 特徵적이다", "...에 依하여 特徵지어진다" "...로부터", "...에게서", "...에 있어서" 따위들 "...있었다"	"의"자를 없애고 내용에 따라 알맞게 고쳐야 ...가 특징이다 (또는 ...의 특징은 ...이다). 내용에 따라 알맞게 고쳐야 "...었다"를 써야
"...化되고"	겹말을 쓰지 말아야
實施, 試圖, 遂行, 投入	없애거나 알맞게 고쳐야